

한일 김산업의 발전과정 분석과 당면과제 연구

옥 영 수*

Th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Steps and Facing Problems of Korean and Japanese Laver Industry

Young-Soo Ock*

Abstract

The laver has been cultivated long time ago by Korea and Japan. Korean Laver Industry has been influenced by Japan on the many factors since 20th. Nevertheless now the both country showed widening disparities across the aspect of total Laver Industry each other.

The development steps of Korea and Japan Laver Industry have been advanced differently. That is, we can keep the Laver Industry development steps of both countries separate by 4 steps. But insignificant of every step against both countries has been dissimilar.

We can separate from 4 steps in Korea, 1 step is origin period from beginning of laver cultivation to 1961. Next step is First Development period from 1962 to 1978. This period come out production increase from about 10,000 tons early 1960 to 50,000 tons late 1970. Next step is Second Development period from 1979 to 2000. This period come out eminent production increase from about 50,000 tons early 1980 to 200,000 tons late 1990. Next step is Stabilization period from 2001 to now. This period come out production control the size of its production and enlargement of Laver Export.

We can also separate from 4 steps in Japan, 1 step is origin period from beginning of laver cultivation to 1944. Next step is Development period from 1945 to 1975. This period come out production increase from about 4 billion sheets early 1960 to 8.5 billion sheets 1975. Next step is Peak period from 1976 to 1982. This period come out sustainable production peak by 6~8 billion sheets and high price. Next step is Decline period from 1983 to now. This period come out production control the size of its production and sustainable price down.

These differences showed out facing problems of Korean and Japanese Laver Industry differently. In case of Korea, the facing problems show out 3. First is structural problem, for example, trouble between original laver producer and the finished producer by dry laver products. Second is Insufficiency of Plants Protection

접수 : 2011년 8월 2일 최종심사 : 2011년 9월 26일 게재확정 : 2011년 9월 28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Corresponding author : 02-2105-4922, ysock57@kmi.re.kr)

System. Third is low quality of Laver.

In case of Japan, the facing problems also show out 3. First is sustainable decrease of laver consumption. Second is change of mind against laver, for example, the change of the propensity to consume, and decrease of brand power. Third is Influence of global system.

The difference of development steps of Korea and Japan Laver Industry show out 2 point of view to us. First we need consider positive strategy against laver production system of enlargement. Second, we need consider separate strategy against high quality laver and low quality laver.

Key words : Development steps between Korea and Japan Laver Industry, Facing Problems between Korea and Japan, Positive strategy against laver production system, Separate strategy against high quality laver and low quality laver.

I. 서론

우리나라에서 김이 처음 양식된 것은 1640년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금의 전남 광양 태인도에서 김여익이란 사람에 의해 김이 처음 양식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이나 그 외 많은 문헌에서 김을 뜻하는 海衣라는 용어가 등장함에 따라 김을 식용으로 이용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¹⁾.

김은 이처럼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근대적 김 양식은 일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채묘기술과 양식기술, 건조기술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산 종묘가 대량 유입되어 김 품종 자체도 일본 품종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김 생산량이 급속도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 모든 면에서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상을 받아 왔다. 또 1970년대 이후 일

본의 초밥(스시)문화가 전세계로 보급됨에 따라 서구인들은 김이라고 하면 일본김을 연상시키게 되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김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2000년대 이후 20만 M/T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마른김 속당으로 환산할 경우 일본을 앞지르게 되었다²⁾. 또한 2010년의 수출 실적은 1억 5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에서는 인삼 다음으로 많은 수출고를 보였다. 이런 추세는 2011년에도 그대로 이어져 1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산업의 이 같은 약진에는 그 동안 일본의 그늘에 가려있던 상황에서 대단한 반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일의 김산업 발전과정을 구분해 보고, 거기서 유의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김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나라에서 海衣라는 명칭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1425년에 간행된 慶尙道地理志이다. 그 외 朝鮮王朝 實錄 태종, 세조편에 海衣라는 용어가 자주 기록되고 있고, 才物譜에 紫菜, 자연(紫蓮葉), 윤(淪), 海衣 등의 명칭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김을 의미한다. 이종화, “김양식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천 김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2009, pp.34~35.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의하면 2011년산 김 생산량은 1억 1천만 속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김의 공판실적은 8,600만 속에 불과하여 2천만 속 이상 우리나라가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해조류 수산관측월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년 6월호.

이런 점에서 본고의 연구목적은 한일 양국의 김 산업 발전과정을 구분하고 비교한 후 현재 양국 김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김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II. 한일 김산업 실태

1.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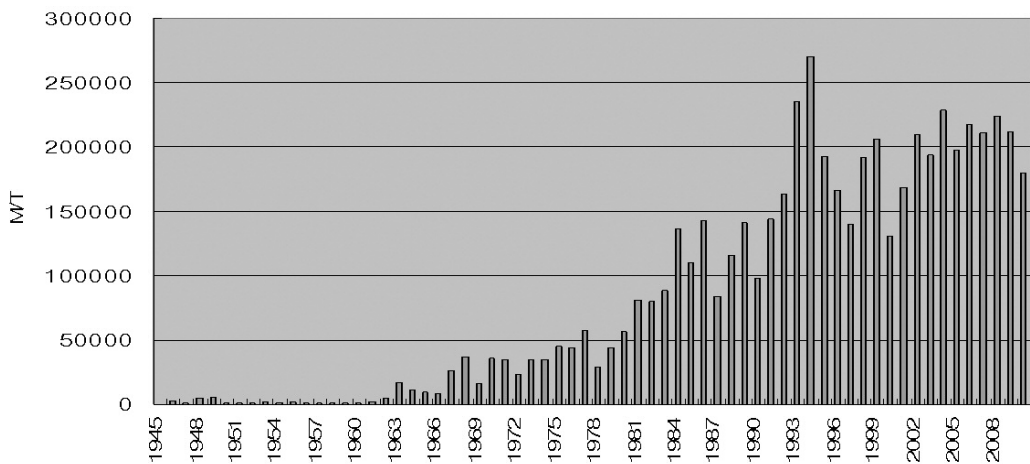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김 생산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전까지는 그 양이 미미하였다. 어장 면적도 협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방법이 전통적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속속 추진되고, 1970년대 이후에는 새마을 운동 등 잘살아보자는 의식이 어촌 곳곳에서 나타남에 따라 당시로서는 상당한 소득 품목이었던 김 생산량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대 초반 이전까지만 하여도 양식어민이 물김을 채취하여 직접 수공으로 마른김을 건조하여 출하하는 형태였으나, 1980년대 이후로는 자동

건조기의 보급으로 물김과 마른김 생산이 분화된 형태로 이루어져 생산량은 더욱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즉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에는 1~2만톤 수준이던 물김 생산량은 1970년대에는 5만 M/T 정도로 늘어났으며, 다시 1990년대에는 10만 M/T을 넘었고, 1994년에는 사상 최대 생산량인 27만 M/T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생산량의 급증은 이후 가격하락과 경영수지 악화 등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게 되어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적정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20만 M/T 전후를 보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김 생산량은 1970년 이후 40년 동안 5배의 놀라운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의 지역별 김 생산실태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김 생산량을 속으로 환산할 경우, 2011년산은 약 1억 1천만 속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영체수는 4,900여호가 되고 있다. 물김 생산량을 마른김으로 환산할 경우,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전북, 부산, 충남, 인천경기의 순을 보이고 있으며, 경영체수는 전남, 충남, 전북, 부산,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각연도 및 통계청, 어업생산통계시스템([http:// fs.fips.go.kr](http://fs.fips.go.kr))에서 작성.

<그림 1> 해방 이후 한국 김 생산량 추이

인천경기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생산량 순과 경영체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경영체당 시설규모가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경영체당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이 호당 10만속을 넘고 있으며, 다음이 전북 86천 여속, 인천경기 63천 여속을 보이는 반면, 가장 많은 생산량과 경영체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은 호당 21천 여속에 불과하다. 또 충남의 경우는 6,400 여속에 불과하여 김 생산어가의 경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 규

모의 차이는 어장 입지여건과 관련이 있겠으나, 김 생산에 대한 생산자간 다른 시각차를 보여 생산자간 대립요인이 되기도 한다.

가장 많은 생산량과 경영체수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에도 시군별로 규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주된 생산지인 진도, 해남, 완도, 고흥군 중 경영체당 생산량은 진도가 71,000속으로 가장 많은 반면, 해남은 10,000속에 불과하여 전남지역 내에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지역별 김 생산 관련 지표(2010년 기준)

구분	생산량(만속)	경영체수(호)	시설책수(책)	경영체당생산량(속/호)	
전국	10,988	4,928	767,662	22,297	
전남	소계	6,992	3,357	550,394	20,827
	신안	726	402	74,206	18,070
	진도	1,847	260	148,980	71,038
	해남	1,318	1,240	111,996	10,631
	완도	1,483	835	76,663	17,758
	고흥	1,010	199	77,825	50,764
	기타	837	421	60,724	19,881
전북	1,903	222	89,865	85,734	
충남	755	1,176	70,333	6,418	
부산	939	90	21,764	104,322	
인천경기	399	63	35,305	63,381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측 월보」에서 작성

〈표 2〉 시도별 김 생산량 변화 추이

(단위 : M/T, %)

시도별	1980		1990		2010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전국	56,274	100.0	97,637	100.0	179,232	100.0
부산	660	1.2	3,241	3.3	10,773	6.0
인천경기	293	0.5	8,540	8.7	11,225	6.3
충남	6,188	11.0	7,387	7.6	11,171	6.2
전북	205	0.4	11,270	11.5	21,251	11.9
전남	45,202	80.3	66,357	68.0	121,020	67.5
경남	3,726	6.6	842	0.9	3,792	2.1
기타	0	0.0	0	0	0	0.0

자료 : 농수산부, 「수산통계연보」 및 통계청, 어업생산통계시스템(<http://fs.fips.go.kr>)에서 작성

우리나라 김 주산지는 전남이 중심지이지만 1970년대 이후 그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즉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에는 전남의 점유율이 80%를 넘었고, 그 다음으로 충남, 경남이 11.0%, 6.6%를 보였으나 1990년에는 전남이 68.0%로 낮아진 반면 전북과 인천경기가 11.5%와 8.7%로 크게 높아졌으며, 부산도 3.3%로 늘어났다. 이후 2010년의 경우에는 전남은 67.5%로 더욱 낮아졌으며, 전북은 11.9%, 충남 6.2%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 외 인천경기는 6.3%로 다소 낮아진 반면 부산은 6.0%로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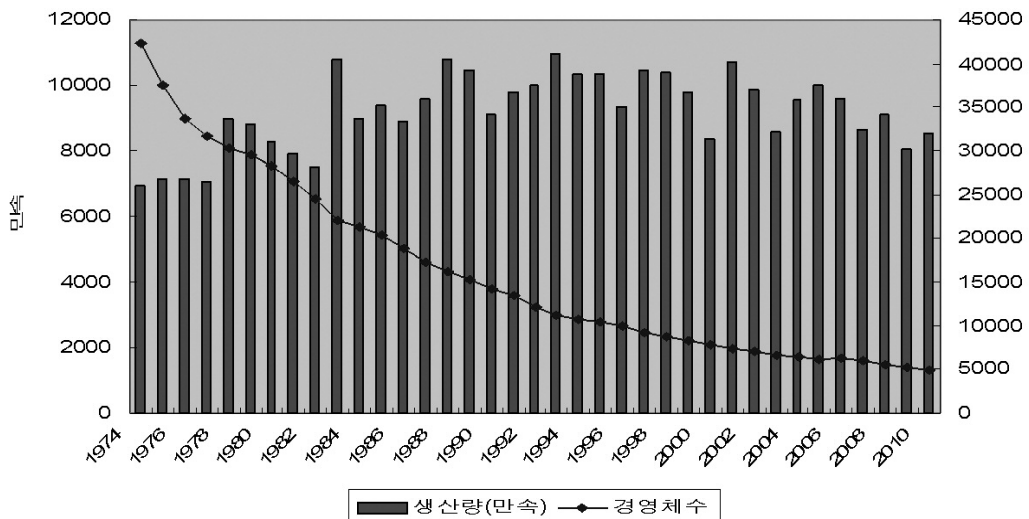
이처럼 지역에 따른 생산량 점유비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남지역의 경우, 어장면적 확대에 한계를 보임과 동시에 어장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서해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라 양식적지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점유율 증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부산지역의 경우 적지 면적은 넓지 않으나 일본의 개량된 기술을 받아들여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

일본의 김 생산량 동향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완만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1970년대에는 대체로 6~8천 만속 정도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1억 속 내외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완만한 생산증가세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경영압박을 받게 되자 계획생산체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후 생산량은 8천 만속 ~ 1억 속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산의 경우 8,600만속이 생산되었다.

한편 경영체수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74년 4만 호가 넘었으나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1980년대에는 2만 호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만호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 결과, 2010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5천호 정도로 줄어들었다.

한편 일본의 지역별 생산실태는 <표 3>과 같다. 이에 의하면 일본의 주된 김생산지는 크게 4



자료 : 全國海苔貝類漁業協同組合連合會(日本)자료에서 재작성.

<그림 2> 일본 김 생산량 및 경영체수 추이

〈표 3〉 지역별 김 생산(공판) 실적 및 구성비

(단위 : 만속, %)

구분	2004		2005		2006		2007	
	출하량	구성비	출하량	구성비	출하량	구성비	출하량	구성비
전국	9,620	100.0	9,944	100.0	9,566	100.0	8,626	100.0
동북	1,037	10.8	1,256	12.6	1,069	11.2	1,052	12.2
중부	921	9.6	883	8.9	758	7.9	815	9.4
세토나이카이	2,884	30.0	2,691	27.1	2,935	30.7	1,573	18.2
큐우슈우	4,642	48.3	4,977	50.1	4,685	49.0	5,060	58.7
소비지공판	136	1.4	137	1.4	119	1.2	126	1.5

자료 : 全國海苔貝類漁業協同組合連合會(日本)자료에서 재작성.

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들이 생산된 김을 직접 소비지 시장에 공판시키는 것을 제외하면 2007년 현재 가장 많은 생산을 보이는 곳은 큐우슈우 지역으로서 전체 물량의 58.7%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이 세토나이카이 인근으로서 18.2%, 그 외 동북지역과 중부지역이 각각 12.2%와 9.4%를 보이고 있다.

각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현을 보면 큐우슈우의 경우, 후쿠오카, 사가, 구마모토, 오이타, 나가사키, 가고시마현으로서 큐우슈우 전 지역이 김 생산지임을 알 수 있고, 세토나이카이 주변은 혼슈 쪽으로는 효고, 오카야마, 오오사카, 히로시마, 야마구치현이 해당되며, 시코쿠 쪽으로는 도쿠시마, 카가와, 에히메현이 포함되어 세토나이카이를 둘러싼 전지역이 김 생산지임을 알 수 있다. 또 동북부지역은 북쪽인 미야기, 치바, 가미나가와 현지역이 되며, 중부지역은 아이치, 미에현이 된다. 이처럼 일본의 김 생산지는 남쪽 큐우슈우의 여러 현으로부터 북쪽의 미야기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지역별 점유비의 변화를 보면, 가장 김 생산량이 많은 큐우슈우지역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세토나이카이 인근은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즉 2004

년에는 큐우슈우지역의 점유비가 48.3%였으나, 2007년에는 58.7%로 늘어난 반면, 세토나이카이 인근의 점유비는 2004년 30.0%에서 2007년 18.2%로 줄어들었다. 이는 일본의 김생산어의 경우, 가격하락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로 경쟁력을 잃은 지역의 경우 생산활력을 점차 잃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Ⅲ. 한국 김산업 발전단계 분석

1. 태동기

우리나라의 김양식 기원은 1640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남 광양군 태인도에서 김여익이란 사람이 이때 처음 김을 길렀다는 기록이 있다³⁾.

이를 기념하기 위해 현재 태인도에는 김 시식지로서의 기념비와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 하지만 김을 식용으로 한 기록은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즉 1425년에 간행된 慶尙道地理志에 海衣라는 명칭이 처음 나오는데, 이것을 볼 때 적어도 그 이전부터 김을 식용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김을 의미하는 海衣라는 명칭은 朝鮮王朝實錄(태종, 세조편), 慶尙道地理志, 才物譜, 茲山魚譜 등 여러 곳에서 기록되고 있다. 다만 직접 길렀다는 기록은 1640년에 처음 나오므로 그 이전에는 모두 자연산을 채취

3) 이종화, “김양식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천 김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2009, p.34.

하여 이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김이라는 명칭은 이외에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才物譜에는 海衣 외에도 자채(紫菜), 자연(紫葉), 윤(漚)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茲山魚譜에도 해태(海苔), 자채(紫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김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당시의 기록에는 김이 조정 공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조공물품에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고 있다. 다만, 김 진상품이 너무 과다하여 어민들의 생활이 피폐하여 물량을 감해 달라는 상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아주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김 생산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좀더 근대화된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즉 근대적인 어업제도인 「조선어업령」의 공포와 더불어 오늘날의 면허제도와 유사한 전용어업권이 시행되었는데 김양식은 이러한 전용어업권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전용어업권은 많은 부분이 일본인에 의해 행사되었기 때문에 김 생산은 대일 수탈품목의 하나로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산양식은 여전히 전통적 방법에 의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생산량은 많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연별 풍흉의 차가 아주 심했다.

해방 이후에는 일본인의 귀국과 6.25전쟁으로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1953년까지 대일 김 수출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나마의 생산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후 1953년 이후 자율적 대일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국내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으나 생산량은 여전히 저위에 머물러 있었다.

2. 제1차 발전기

우리나라에서 김 산업이 처음으로 발전의 전기를 맞기 시작한 것은 196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모태가 되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1960년대 초, 1만톤 내외에 머무르던 김 생산량은 1970년대 후반에는 3~4만톤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우리나라 김산업의 제1차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⁴⁾.

이 시기에 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그 첫 번째가 우선 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일 김수출이 재개된 것들을 들 수 있다. 당시는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태에서 수출만이 경제활력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대일 김 수출의 재개는 생산량 증대의 중요한 유인수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석유화학공업과 같은 사회기반산업의 발전은 양식기자재 공급을 용이하게 하여 양식기술 개발을 촉진시켰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그 한 예가 종래 일본홍(一本洪)에서 망홍(網洪)으로의 생산양식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일본홍에서 망홍으로의 생산양식의 변화는 매우 큰 생산증대

〈표 4〉 제1차 발전기의 김 생산 성과 지표

기간구분	평균생산량 (천속)	평균수출량 (천속)	수출비율 (%)	책당생산량 (속/책)	평균경영체수 (가구)
1961~1965	9,600	1,700	17.7	42.1	32,000
1966~1970	13,300	4,100	30.8	40.7	36,700
1971~1975	19,500	2,200	11.3	52.4	38,400
1976~1978	21,600	-	-	63.0	46,000

자료 : 김연수(1984) 논문에서 재작성.

4) 1962년부터 1978년까지를 1차 발전기로 잡은 이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78년에 우리나라에 김 자동건조기(종합처리시설)가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 다양한 품종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옴과 동시에 국내 품종도 개량되었으며, 인공채묘 기술이 실용화된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진보 외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마을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는데, 어촌에 있어서도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대대적인 어장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양식면적의 확대는 생산량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 시기의 김 생산 성과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이에 의하면 1965년까지 평균 생산량은 연간 960만 속이었으나, 마지막 구간인 1976~1978년에는 연평균 2,160만 속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기술진보를 의미하는 책당 생산량은 1965년까지는 42.1속이었으나 1976~1978년 구간에는 1.5배 가량 늘어난 63.0속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생산량과 생산성의 증가는 어가소득을 향상시켜 연안어촌에서 김은 중요한 소득품목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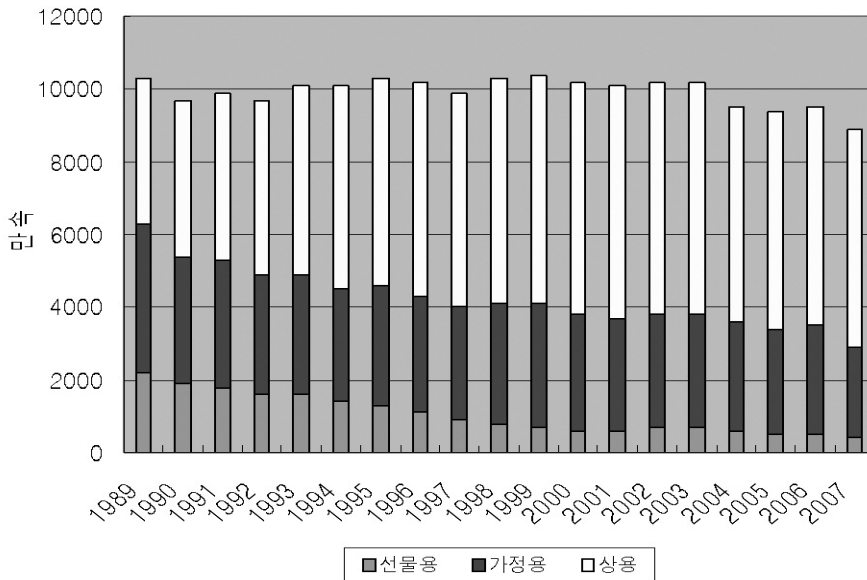
그러한 증거로서 평균 경영체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즉 동기간 동안 우리나라 농촌과 어촌에는 전반적으로 경영체수가 크게 감소한 시기였다. 즉 이농과 이어현상이 일반적으로 심화되는 시기였으나, 김 경영체수는 이와 반대로 1965년까지의 연간 평균 32,000가구에서 1976~1978년의 연간 평균 46,000가구로 50% 가량이나 증가하였다. 이것은 당시 연안어촌에서 김이 얼마나 중요한 소득품목이었던가를 나타내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3. 제2차 발전기

1978년은 우리나라 김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김 자동건조기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자동건조기는 종합처리시설이란 명칭으로 시설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일본에서 개발된 건조기가 정부 주도로 도입되었으나 그 효과를 체험한 생산자들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입을 확대하였다.

김 자동건조기의 도입은 이후 우리나라 김 산업을 전통적인 양식업에서 물김 생산과 마른김



자료 : 2004년 이전은 전남도청 내부자료, 2004년 이후는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그림 3> 1980년대 이후 김 책당 생산량 추이

생산으로 산업적 분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산업적 분화는 김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⁵⁾.

이 결과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에는 사상 최대의 생산량인 27만 톤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생산량 급증의 동인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김 자동건조기 보급의 확대를 들 수 있는데, 그 보급속도는 1983년에 조사된 자동건조기 실태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즉 1978년에 처음 자동건조기가 보급된 이후 5년만인 1983년에 전국의 보급대수는 383대로 확대되었는데, 당시로서는 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이 150대, 구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반자동이 233대이다(표 5).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불과 5년 만에 400여대 가까운 보급대수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으로는 정부지원이 63대에 불과한데 비해 자체자금에 의한 시설이 320대로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예나 지금이나

수산부문에 정부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신규 시설을 이루는 예가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성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단순히 생산량만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 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였다. 즉 제1차 발전기에 책당 평균 생산량이 1960년대 초반 42.1책에서 1970년대 후반 63.0책으로 1.5배 가량 증가한데 비해(앞의 표 3), 제2차 발전기에는 산업 구조적인 분화에 의해 동일한 생산성 증가가 더 빠른 기간에 이루어졌다. 즉 앞의 <표 4>에서는 20년에 걸쳐 1.5배의 생산성 증가를 보였으나, 제2차 발전기에는 1980년대 후반 이후 10년만에 2배 가량의 생산성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4>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점으로서 김 주산지가 변모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당시 김의 주산지였던 완도, 고흥 등에서는

<표 5> 김 자동건조기(종합처리시설) 실태(1983)

구분		합계	고흥	완도	해남	무안	기타
합계	계(A)	383	27	28	125	46	157
	자동	150	4	10	50	15	71
	반자동	233	23	18	25	31	86
정부지원	계	63	9	8	5	12	29
	자동	12	2	-	-	3	7
	반자동	51	7	8	5	9	22
자체시설	계(B)	320	18	20	120	34	128
	자동	138	2	10	50	12	64
	반자동	182	16	10	70	22	64
경영체수		34,409	5,821	13,044	2,575	450	12,519
시설당경영체수		89.8	215.6	465.9	20.6	9.8	79.7
자체시설비율(%) (B/A*100)		83.6	66.7	71.4	96.0	73.9	81.5

자료 : 김연수, “기업적 해태양식경영의 성립조건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15권 제1호, 1984. 6, pp.96~113에서 재작성.

5) 김 자동건조기는 일본에서 개발되어 일본과 한국에 널리 보급되었으나 일본은 김양식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자동건조기를 보유하여 생산에 임한 반면 한국에서는 김양식업자와 김건조업자가 분리되어 산업적 분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산업적 발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한국 김산업이 일본 김산업을 능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옥영수, “김산업의 발전과정과 세계화 전략에 관한 연구”, 계간 해양수산, Vol.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2, pp.72~97.

자동건조기 시설당 경영체수가 465.9호나 215.6호였는데 비해 김 주산지(가)가 아니었던 해남, 무안, 기타지역은 20.6호, 9.8호, 79.7호로 매우 적은 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주산지였던 완도나 고흥의 경우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김을 생산한 반면 신흥지역에서는 적은 김 경영체수에도 불구하고 건조기가 영위될 정도로 경영체당 양식면적이 넓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신흥지역에서는 신규면허를 통해 경영체당 넓은 양식지를 보유함으로써 대량생산의 기틀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해남, 무안, 기타지역의 신흥지역의 자체시설 비율이 전통적 양식지역인 완도와 고흥에 비해 높은 것도 그것을 증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김 자동건조기 보급의 의의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김 산업의 분업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업화는 우리나라 김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김 산업이 분업화된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주로 임가공 형태로 존재하였다. 김 양식업자들이 물김을 가져와 마른김으로 건조를 의뢰하는 수준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생산효율성은 크게 증대할 수 있었다. 이후 자동건조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김 건조업자들은 원초를 사서 직접 마른김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물김 생산자와 마른김 생산자로 분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4. 안정기

김산업의 급속한 발전에는 그에 따른 명암을 가져다 주었다. 즉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은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생산량이 급증한 반면 소비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가격은 급격히 낮아지게 된 것이었다. 그에 비해 1, 2차 석유 파동 등 생산비는 크게 상승하게 되고, 인건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어 김 생산여건의 경영은 크게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적정 생산량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

식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으나, 수산업의 특질상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불법면허지의 단속, 신규면허의 금지 등 생산량 조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생산자들은 불법면허지를 확대하여 생산량 증대를 통해 악화된 경영수지를 보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 들어 우리나라 김 산업에 있어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생산자의 자율적 인식에 의한 생산조절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01년 이후를 제2차 발전기에 이어 안정기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2001년 김 유통조절위원회가 발족한 것을 들 수 있다. 유통조절위원회는 유통협약과 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국적인 생산자 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동위원회는 중요 생산지별 시군조직을 갖추고 매년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물김 폐기사업, 소비촉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4년에는 김관측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09년에 이르러서는 김산업연합회라는 이름으로 김대표조직이 발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산조절운동은 유통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생산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즉 앞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최근에는 책당 생산량이 140여 속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1960년대 초 책당 생산량이 40여 속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산업 연합회는 종래 유통조절위원회가 물김 생산자들만으로 조직되어 우리나라 김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물김 생산자, 마른김 생산자, 김수출업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조직된 김 대표조직이다. 이 연합회는 생산, 건조, 유통, 수출의 중

합적인 조직으로 확대되어 생산측면 뿐만 아니라 소비확산, 수출증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2010년에는 1억 달러의 수출고를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출증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산성 증대, 정부와 유통인에 의한 체계적 조직화 등에 힘입었다 할 수 있다.

IV. 일본 김산업 발전단계 분석

1. 기존 연구의 발전단계 구분

일본 김 산업을 시대구분한 연구는 다수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 먼저 小高正念(2006)에 의한 생산기술 관점과 유통관점에 의한 단계 구분이 있고, 다음으로는 斐小波(2004)에 의한 무역관점에서의 단계 구분이 있다⁶⁾. 이중 小高正念(2006)에 의한 생산기술 관점에 의한 단계는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2차대전 이전을 태동기, 패전 이후부터 1975년까지를 성장기, 그리고 1975년 이후 현재까지를 쇠퇴기로 구분하고 있다.

동 연구에 의하면 2차 대전 이전까지 일본의 김 산업은 운에 의존하는 양식업의 정도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라고 설정하였다. 明治期 이전부터 양식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기술이 미발달한 시기였고, 明治期에 자본투하에 의해 어느 정도 산업적 발전을 이루기는 했으나 여전히 연별로 불안정한 작황을 보여 2차 대전까지는 운에 의존하는 양식업으로 정의하였다.

패전 이후 1975년까지의 성장기는 생산기술이 획기적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기의 수요증가로 인해 가격이 크게 상승한 시기라고 하였다. 동시기에는 김 생활사 발견으로 인해 부류식 양식법이 개발되었고, 이는 어장의 외연적 확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 생산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산증대는 1975년을 정점으로 이후 생산증가 없이 소비부진으로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생산금액은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쇠퇴기로 정의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소비가 크게 둔화되어 시장의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또 유통 관점으로는 1975년에 시작된 계통공판 시스템 이전과 이후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계통공판이 실시되기 이전인 1975년 이전에는 김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로서 도매상과 생산자간의 고정거래가 이루어져 생산자의 가격교섭조건이 불리한 시기였다. 따라서 공정한 가격결정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계통공판 시스템인데,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건전한 판매경쟁의 도입으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어업협동조합이나 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계통공판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수요확대기에는 적정 가격의 형성으로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요축소기에는 가격 하락을 촉진하여 생산자 이익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斐小波 교수는 무역관점으로서 4단계로 시대구분을 하였다. 즉 2차대전 이전부터 1953년까지를 제1기로서 정부관리무역기로, 1954~1977년을 제2기로서 민간보호무역기로, 1978~1994년을 제3기로 한국김 수출금지기로, 1995~현재까지를 제4기로 신무역제도 형성기로 구분하였다.

이중 제1기인 정부관리무역기는 정부가 김을 수입하여 배급하던 시기로서, 1946년 국내 김은 자유판매되었으나 수입김은 여전히 정부차원에서 수입하여 배급하던 시기를 일컫는다. 이후 제2기인 민간보호무역기에는 1954년 ‘한국김수급

6) 이 외에 吉木武一 등에 의한 연구도 있으나, 주로 1970년대 이전에 행해진 연구이기 때문에 최근의 동향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小高正念와 斐小波의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정협의회'가 결성되어 한국김이 수입되었으나, 상한을 100만속으로 못박음으로써 김수입에 실질적인 장벽을 둔 시기라고 보았다. 이때부터 김 보호무역이 시발되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1970년대 이후 일본 김 생산이 6천만 속 이상으로 증가하여 일본 국내 공급에 안정을 보인 반면, 한국 김은 작황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한국김 수입량은 감소한 시기라고 하였다.

이후 1978년부터 1994년까지는 한국김 수출금지기로 보았다. 이는 일본 국내 생산증가로 일본 수입업자들의 수입 마진이 감소한 가운데 한국도 국내생산이 부진하여 국내수급에 차질을 빚어 한국김을 수출금지하던 시기라고 하였다. 이 당시 한국김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일본 김은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여 국제시장에서 일본김이 대약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는 신무역제도 형성기로서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한일 김 교역이 자유로운 시기를 의미한다. 즉 신무역제도에 따라 1995년부터 한국김 수입이 재개되었는데, 그 중요 원인으로는 한국의 김생산이 증대하였고, 조미김과 같은 새로운 김 제품의 등장을 들고 있다⁷⁾.

2. 일본의 김산업 발전단계 구분

1) 태동기

斐小波는 일본 김 양식업의 기원을 江戸 말기로 보고 있다. 즉 에도시대 말기 동경만 일대에서 김양식이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江戸 시대는 1603~1867년이므로 말기라고 한다면 1800년 이후 정도이므로 1640년에 처음 시작된 우리나라보다 양식의 기원은 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산업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비교하

기 어렵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김 양식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명치시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즉 小高正念(2006)에 의하면 명치시대에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여전히 소량 생산하는데 그쳤는데 연별 풍흉이 심해 운에 의존하는 양식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성장기(1945~1975)

이 시기는 小高正念교수가 생산기술 관점에서든 유통관점에서든 뚜렷한 구분이 가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생산기술적 측면에서 1964년 인공채묘기술이 보급되고, 1970년 냉동망 기술 보급이 이루어지고, 1971년에는 부류식 양식법이 보급되는 등 생산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힘입어 김양식업을 불안정한 작황의 양식업에서 안정적 생산 품목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68년까지 연간 4천 만속을 생산하였으나 1969년 이후에는 연간 6~8천 만속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으며, 1973년에는 9,500만 속을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이시기는 경제발전에 따라 김 수요도 증가하는 시기로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1960년대 초반에는 속당 600~800엔이었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두 배 가까이 상승하게 되었다⁸⁾.

3) 성숙기(1976~1982)

이 시기는 小高正念교수가 생산관점에서는 쇠퇴기로 표현하였으며, 유통관점에서는 계통공판 시스템이 도입된 시기이다. 또한 斐小波교수는 1978년부터 한국김 수입이 중단되어 일본 김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한 시기라고 하였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일본입장으로서 쇠퇴기

7) 이는 일본측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으로서 제3기 한국김 수출금지기는 당시 우리나라는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던 시기로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중단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신무역제도 형성기에도 단순히 한국김 수입이 재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WTO를 거론하며 강력하게 김 수출 재개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는 아직도 양국간 협정(IQ제도)에 의해 점진적으로 수출물량을 늘이기로 한 것으로서 잘 알 수 있다.

8) 일본에서는 낱장으로 가격을 매기지만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100장 단위인 속(束)으로 환산하였다.

라고 하기보다는 성숙기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계통 공판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 가격도 매우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평균 생산량은 4~6천만 속에서 6~8천만 속으로 증가하였고, 가격면에서는 속당 1,600~1,800엔으로 최고 가격을 유지하던 시기였다. 또한 1977년에는 계획생산이 실시되었고, 가공면에서는 자동건조기가 개량되어 1981년에는 대형자동건조기가 도입된 시기이기도 하다.

4) 쇠퇴기(1983~현재)

1983년부터 일본의 김산업은 쇠퇴의 징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그 이전 시기에 김의 최고가격을 형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계획생산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때부터 수입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小波교수가 지적한 대로 신무역시대를 맞이하여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2008년 현재 일본 내 소비량의 10% 가량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는 수요 또한 크게 줄어든 시기로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속당 800~1,000엔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하락은 경영수지를 크게 악화시켜 김 생산여가의 이탈을 가속시켰다. 이 결과 1970년대 초 5만 가구에 이르던 김 생산어가는 2008년 현재 4,800가구로 줄어들게 되었다.

V. 한일 김산업의 당면과제

1. 한국

오늘날 우리나라 김 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생산자간의 구조적인 문제로써, 물김과 마른김 생산자간의 마찰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김산업의 발전단계에서 물김과 마른김의 생산 분화는 우리나라 김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생산 전문화를 통해 양적 생산 증대의 견인차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분업효과로도 설명된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은 상호간 마찰의 원인이 되기 시작했다. 즉 한정된 수요를 두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른김 생산자는 값싼 원초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결국 양 집단간의 구조적인 마찰을 몰러 일으켰던 것이다.

마른김 생산자는 생산원가 절감 목적으로 값싼 원초를 전국 곳곳에서 구해 저급 혼합 김을 생산하고, 물김 생산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어업과 산처리제의 남용 등 많은 추가적인 문제를 유발하였던 것이다. 김산업연합회가 발족하여 표면적으로는 자율적 생산조정을 이루고 있으나, 값싼 원초사용에 따른 저급품 생산의 증가는 물김 생산자와 수출업자 나아가서는 마른김 생산자 스스로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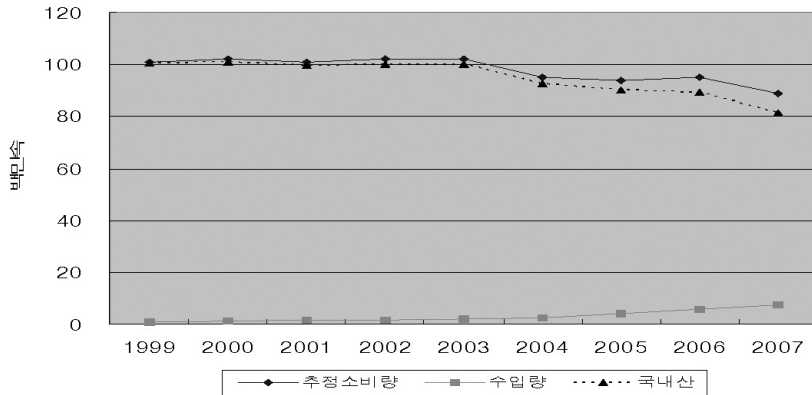
물김과 마른김의 산업적 분화는 2차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생산량 증대 달성 이후 김이 세계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새로이 조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김, 미역 등 해조류에 대해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김 품종보호제도는 그 자체로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장점 으로서는 우수한 육종재료와 유전자원의 도입이 용이하다는 것과 국산 우수 품종의 해외 진출 유인이 발생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단점으로는 외국 품종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김 품종 중 일본계 품종이 20% 가량 있다고 한다. 물론 당장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경영비 상승 요인으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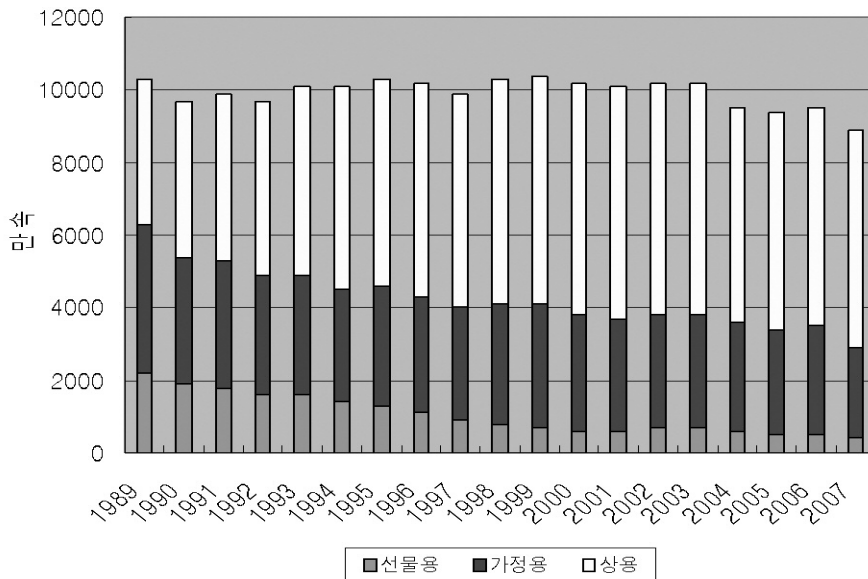
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세한 해조류 종묘산업과 양식업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품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는 김 품질 저하 문제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은 전지구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위생적이고 친

환경적인 김 생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활성처리제, 이물질 등에 대한 논란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는 앞에서 언급한 물김 생산자와 마른김 생산자 간의 이원화된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지만⁹⁾ 어쨌든 양적생산 증대에서 질적 생산으로의 전환이 우리나라 김 산



자료 : 全國海苔貝類漁業協同組合連合會(2008, 日本)자료에서 재작성.
 <그림 4> 일본 김 소비량의 변화



자료 : 全國海苔貝類漁業協同組合連合會(2008, 日本)자료에서 재작성.
 <그림 5> 일본 김 소비 용도의 변화 추이

9) 생산자 실명제나 지역표시제 등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이원화된 생산체제 때문이다.

업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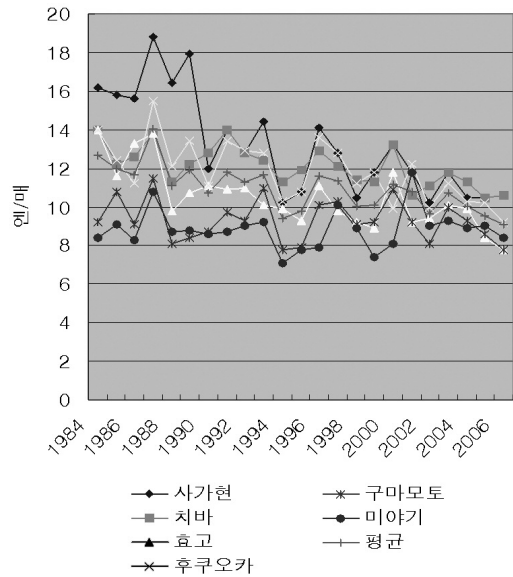
2. 일본

일본에 있어서 김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도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김 소비의 저하이다. 김 소비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일본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그 양상이 크게 심화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김 소비저하문제는 절대량에 있어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입량의 증가로 국내산의 공급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즉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일본의 김 소비 절대량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량은 점점 늘어나 최근에는 수입산 비중이 10%를 넘게 되었다.

두 번째는 김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소비 성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종래 일본 김의 소비 용도는 상용, 가정용, 선물용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그림 5>. 그러던 것이 1990년대를 지나면서 편의점과 패스

트푸드점의 확산에 따라 상용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선물용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과거에는 김이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선물용으로서의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김의 부가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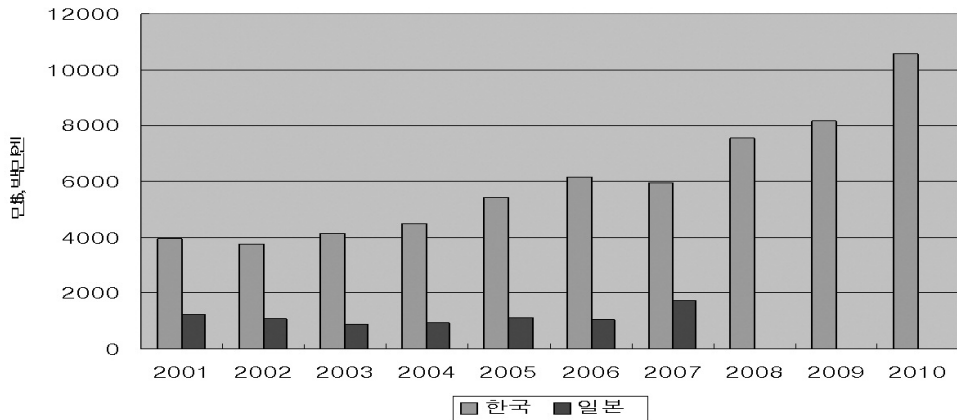
자료 : 全國海苔貝類漁業協同組合連合會(2008, 日本).
 <그림 6> 일본 김 산지별 가격 격차 추이

<표 6> 일본의 김 소비량과 수입량 추이

(단위 : 만속, %)

연도	추정소비량(A)	국내산(B)	수입량	자급률(B/A)
1999	10,100	10,031	69	99.3
2000	10,200	10,080	120	98.8
2001	10,100	9,950	150	98.5
2002	10,200	10,020	180	98.2
2003	10,200	9,990	210	97.9
2004	9,500	9,260	240	97.5
2005	9,400	9,000	400	95.7
2006	9,500	8,915	585	93.8
2007	8,900	8,159	741	91.7
2008	8,900	8,004	896	89.9

자료 : 全國海苔貝類漁業協同組合連合會(2008, 日本)자료에서 재작성.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한국) 및 全國海苔貝類漁業協同組合連合會(2008, 日本)자료에서 작성.
 <그림 7> 한국과 일본의 김 수출 동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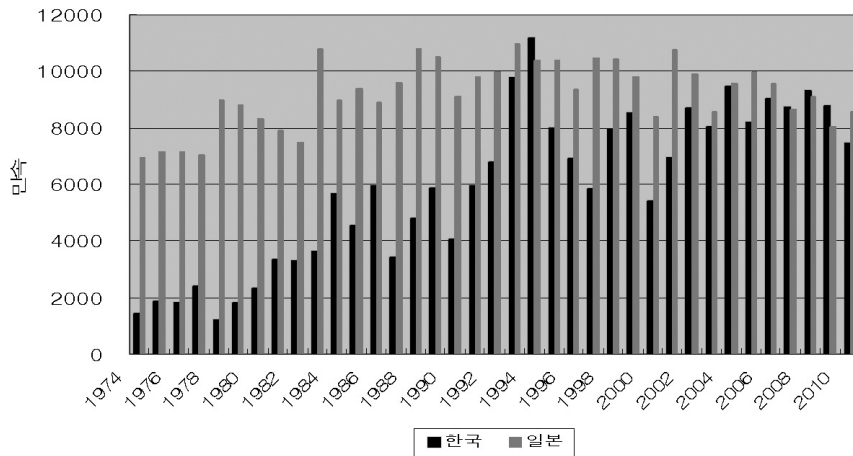
또 다른 하나는 브랜드 파워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즉 일본은 다양한 지역에서 김이 생산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각 산지에 따라 김의 선호도가 매우 달랐다. 이에 따라 산지에 따른 김 가격은 큰 차이를 보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지역간 가격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즉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는 비싼 김이 생산되는 사가현, 치바현, 효고현 등의 가격과 구마모토현이나 미야기현의 가격차가 아주 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그 폭이 점차 좁혀져 최근에도 가격차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해졌다.

세 번째 당면과제로는 글로벌 체제에 의한 영향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WTO체제에 의한 신무역질서가 정착되면서 세계 교역량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일본도 오랫동안 수입할당제(IQ제도)에 의해 한국 김 수입을 제한해 왔으나 우리의 압력에 의해 점차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김을 수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급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에는 자급률이 98%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90% 미만으로 떨어졌다(표 5). 이는 절대 소비량의 감소와 더불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체제에 따른 또다른 문제로는 수출 경쟁력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일본은 지난 1970년대 이후 스시로 불리는 초밥문화의 확산에 따라 일본산 김 수출이 크게 성행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김에 의해 해외시장이 점차 잠식당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7>에 의하면 일본 김의 수출액은 200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으나 한국 김의 수출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 김의 이러한 수출 약진은 2000년대 후반 들어 그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어 향후 일본김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Ⅵ. 시사점 및 결론

이상 지난 수백년간 세계 김산업계를 이끌어 왔던 한국과 일본의 김산업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상황도 짚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김산업은 확실히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의 물량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익률이 낮아 생산여가가 급감하고 있는 점에서 이미 상당 기간 이전부터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수입할당제와 같은 보호제도를 통해 그나마



자료 : (한국)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각연도
 (일본) 全國海苔貝類漁業協同組合連合會(2008) 및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統計」 각연도에서 작성.

〈그림 8〉 한일 김 생산량 비교 추이

의 생산어가들이 존립되어 왔지만, 글로벌화가 갈수록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국내의 김산업의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스시문화의 보급과 함께 세계 시장에 ‘노리’ 라는 일본 명칭과 함께 일본김이 일찍부터 선점하고 있었으나, 수출경쟁력을 앞세운 우리나라 김의 수출 증가는 일본김의 위상을 점점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김산업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활기를 잃지 않고 있다. 불법어장 단속, 유통협약 등의 사업을 통해 생산 억제에 힘을 쏟고 있으나, 지역간 생산 경쟁, 기술개발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높은 생산성과 가공기술에 힘입어 수출 물량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시장이 중요한 수출지역이었으나, 이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EU,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이 수출대상국이 되고 있다. 2010년의 김수출대상국은 67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확장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종래에는 주로 수출되던 김의 형태도 건조김 자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조미김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김 수출이 늘어나는 것도 청신

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김이 초밥이나 부식용으로서가 아니라 스낵용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수출 확대 전망을 아주 밝게 하고 있다. 이는 아직 김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나 남미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김 신제품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김의 확산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제 김과 관련된 우리의 정책기조도 다소 바뀔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여태까지 김은 수급을 고려하여 생산억제 정책을 펼쳐 왔지만, 이제는 좀더 공격적인 포지티브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그동안 세계를 지배해 왔던 일본김을 대체하여 우리나라가 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림 8).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격하락 등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겠지만 초과 공급된 부분은 수출하여 국내 공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김생산도 무조건적인 증산이 아니라 생산의 차별화를 통해 고급김은 더욱 고급

스럽게, 나머지는 생산증대를 통한 양적증가로 이원화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이다. 고급김의 추진방향으로는 산지에서 등급화시스템을 도입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질적 생산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반면, 나머지 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공김을 생산하여 수출 확대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연수, “기업적 해태양식경영의 성립조건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15권 제1호, 1984. 6, pp.96-113.
- 수산청, 수산청 30년사, 1996. 3, pp.336-337.
- 이종화, “김양식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천 김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2009, pp.34-35.
- 옥영수, “김산업의 발전과정과 세계화 전략에 관한 연구”, 계간 해양수산, Vol.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2, pp.72-97.
- _____, “우리나라 김산업 발전을 위한 논점과 방안”, 수산경영론집, 제41권 제2호, 2010. 9, pp.25-44.
- _____, “김등급화의 방안과 과제”, 수산정책연구, 제2권 제2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6, pp.5-9.
- 옥영수 등, “김,넙치,전복 수출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연구, 2009. 5, pp.95-101.
- 차철욱, “이승만정권기 대일 김 수출구조와 성격”, 역사학연구, Vol.19, 2002, pp. 444-45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방안”, 워크숍 결과보고서, 2005. 6, pp. 51-63.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관측월보, 2011. 6.
- 小高正念, “ノリ養殖生産の現状とその史的展開”, 日本の水産業を考える復興への道, 成山堂, 2006, pp.21-229.
- 吉木武一·秋谷重男, “ノリ養殖經營の展開と價格・費用・收益”, 水産經濟研究, No.10. 水産廳, 1968.
- 全國海苔貝類漁業協同組合連合會, 「ノリ業界の現況」, 2007.
- 婁小波, “ノリ”, 主要水産物の需給と流通, 東京水産振興會, 2004, pp.275-290.